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의 조건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책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공장장과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8. 25. 선고 2025고단437 판결). 같은 사고를 두고 현장 안전책임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구분해 판단한 사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출입 통제, 신호 방법 마련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사고 당시 원청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 안



약 6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우수배관 설치를 위한 표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구역에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리모컨으로 천장주행크레인을 조작해 강연선 다발을 옮겼다. 그러나 양쪽 작업의 시간과 동선이 공유되지 않았고, 크레인 이동 경로와 충돌 위험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들이받아 작업대가 전도됐다.

법원은 공장장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적은 교육일지를 작업계획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문서에는 고소작업대와 크레인의 이동 경로, 작업 순서, 충돌 위험 및 방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장장과 공무팀 차장에게 작업을 조정하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었으며, 하도급업체 대표와 안전담당자, 크레인 운전자도 작업계획과 신호자 없이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류와 실제 작업이 어긋날 때 공장장과 실무책임자

의 책임은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회사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있었고, 전사방침이 각 공장의 목표와 교육으로 이어진 자료와 안전보건 관계자 평가기준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기 위험성평가에서는 무선 리모컨의 사각지대와 크레인 충돌 위험을 파악했고, 3인1조 작업, 리모컨 화수, 호각 신호 등의 대책도 세웠다. 사고 당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그렇다고 안전보건 방침이나 평가표만 만들면 무조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은 공통 양식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위험을 절차에 반영하며, 위험성평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했고 실제 이를 이행해왔다면, 설령 현장조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곧바로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 안보, 가격보다 신뢰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의 거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은 기존 공급망이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제 공급국과의 관계 약화나 수송로 제약으로 계약한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의 신뢰성과 공급망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과 물량에 더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공급받을지를 조달 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봐야 한다.

파티비블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꼽은 것도 이런 현실을 짚은 말이다. 국제 정세 급변으로 인해 신뢰 관계를 오랜 거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정책과 정세 변화에 따른 위험을 다시 살펴야 한다. 조달처 다변화도 거래 국가를 늘리는 데서 끝나는 안 된다. 여러 공급처가 같은 수송로에 의존한다면 여전히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체 물량을 실제로 가져올 권리와 운송 수단까지 확보해야 다변화가 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공급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국가 비축과 수송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은 계약 조건과 대체 조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공급이 중단됐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대응 계획의 빈틈을 메꿀 수 있다.

이런 준비에 필요한 비용도 인정해야 한다. 비축과 대체 수송로 확보에 드는 지출은 공급 중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다.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면서 조달 성과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으로만 평가한다면 필요한 투자는 뒤로 밀리기 쉽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정해야 공급망 강화 정책에 실행력이 생긴다.

에너지 안보의 성과는 위기에 드러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평상시의 선택이다. 유리한 계약을 맺는 데서 나아가 그 계약을 이행할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상대를 선택하고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8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병세가 심각하니 스스로의 몸을 돌보세요. 60년생 자신의 실수로 비롯된 일입니다. 72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천천히 되집어 보세요.



소

49년생 체통을 잃으면서도 이득을 보려 하지 마세요. 61년생 희망 없는 일에 재물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73년생 아이를 출산하겠으나 태아가 허약합니다. 85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로랑이

5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내기 좋은 일만 생깁니다. 62년생 소송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고난이 따르게 되나 얻는 것이 많습니다. 86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도끼

51년생 동쪽 물가를 조심하세요. 63년생 구설수와 연행을 주의하세요. 7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7년생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

52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64년생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88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뱀

53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65년생 본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77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89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말

54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66년생 낭비를 줄이고 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추진하세요.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양

55년생 계속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명예가 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으니 이득이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개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될 것입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화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부자와 빈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부자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 이가 있다. 라이너 지텔만의 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으나 부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로 알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에서 그는 자본주의 옹호론자로 보인다. 부의 개념을 너무 통념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의 통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곳으로 대체로 아프리카를 떠올리지만 놀랍게도 20세기 세계 저래 빈곤 인구의 80%가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그의 통찰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의 원인을 것처럼 사회과학적으로 추론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주팔자나 관상학적으로는 부자와 빈자를 판별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사주 상 재운이 확연한 이들은 관상학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나 재운이 좋더라도 다른 복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즉, 재물복은 좋은데 육친의 복이나 덕은 박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옛사람들은 큰 부자를 꿈꾸기보다는 복덕이 구축하기를 발원하곤 했는데, 이는 적당한 재물에 가족들이 화합하며 건강하게 평균 수명 정도의 천수를 누림을 말하는 것인데 실로 복덕이 구축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그리 발원한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족의 안녕과 무탈함이 복덕구축의 으뜸이라 보아 항상 칠성님께 빌고 산신님께 빌곤 하였다. 칠월에는 칠월 칠석과 백중재가 있고 팔월 보름 추석은 산사람과 망자를 위한 기도가 함께 있다. 지구리는 별에 태어나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딛고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8호	
일간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8	2	1	9	6	7
2	2	7	6	1	9	8	8	8
6	9	8	8	7	9	1	2	2
2	9	6	9	8	2	7	1	8
7	2	8	1	6	8	2	9	9
9	8	1	2	9	7	8	2	6
1	6	9	9	8	8	2	7	2
8	8	2	7	2	1	6	9	9
9	7	2	2	9	6	8	8	1

9	8	7	9	8	1	6	2	2
9	2	1	6	2	9	7	8	8
2	8	6	8	7	2	9	1	9
8	7	9	2	6	2	8	9	1
8	6	9	1	8	9	7	2	2
1	9	2	7	8	9	2	6	8
6	1	8	2	9	7	8	2	9
7	9	8	1	9	2	2	8	6
2	2	9	8	6	8	1	9	7